SPO NEWS LETTER

대검찰청 뉴스레터

2019년 4월호

01 일단 뜨겁게 수사하라
매일경제 선정 제8회 올해의 검찰수사 경제사건

02 검찰 생활 필수품 워라밸
Work and Life Balance

03 있잖아, 너 혹시 벚꽃이니?
헷갈리는 봄꽃 전격 비교

04 전지적 검찰 시점
대검 소식 +이달의 기사

05 뛰어날 檢 빼어날 察
1·2월 형사부 우수 수사관·실무관 선정

06 이런 검찰인 처음이지?
향토사학자 울산지검 이상준 서기관

07 퀴즈왕 당첨자는 나야 나~

01 일단 뜨겁게 수사하라

매일경제 선정 제8회 올해의 검찰수사 경제사건

지난 3월 12일, 반가운 뉴스가 검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바로 제8회 올해의 검찰수사 경제사건 선정식"이 열렸다는 소식인데요, 저희 뉴스레터 제작진이 발 빠르게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2011년부터 매일경제는 대검찰청과 함께 경제범죄 수사에서 좋은 성과를 낸 사건을 선정해 시상해 오고 있습니다. 8회째를 맞은 올해에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형록)와 부산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유동호)가 공동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왼쪽부터 이상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김형록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유동호 부산지검 외사부장, 장대환 창원지검 단관 · 경제범죄전담부장, 조대호 인천지검 특수부장, 장대환 배종하대구지검 형사3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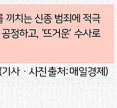
정 대 정 부장검사 / 김 형 록 부장검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 : 가상화폐거래소 비리 사건

서울남부지검 금조2부는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업체 비리 사건'을 파헤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수사팀은 지난해 12월 '업비트' 운영업체 최대주주 A씨 등을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이중 일부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까지 금조2부를 이끌던 정대정 부장검사는 "가상화폐 관련 판례가 없어 법리 구성부터 쉽지 않았지만 유죄를 이끌어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후 수사를 이어받은 김형록 부장검사는 "이 사건이 좋은 경제 사건으로 평가돼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지검 외사부 : 국제공항 환승구역 금괴 밀수 사건

부산지검 외사부는 '국제공항 환승구역 금괴 밀수 사건'으로 올해의 경제사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홍콩에서 금괴 4킨어 개(2조 원 상당)를 한국으로 밀반입한 뒤 여행객을 이용해 일본으로 밀반출한 조직을 적발한 사건입니다.
역시나 지난해 7월까지 외사부를 이끌었던 조대호 부장검사는 "한 번도 기소하지 않았던 유형의 사건이지만 끈질긴 수사로 유죄 판결을 받게 했다"고 기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후 공소 유지를 지휘한 유동호 부장검사 또한 "이 사건의 법리적 쟁점은 학계 등에서 연구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조 대 호 부장검사 / 유 동 호 부장검사

이상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도 이날 검찰을 대표해서 선정식에 참석해 "광범위한 피해를 끼치는 신종 범죄에 적극 대처해 경제의 근간인 서민이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검찰은 공정하고, '뜨거운' 수사로 국민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많이 응원해주세요!!

(기사 · 사진출처:매일경제)

02 검찰 생활 필수품 '워라밸'

Work and Life Balance

직장인에게 이제 '워라밸'은 너무나 친숙한 단어죠~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은 일할 땐 일에만 집중하고 퇴근 후엔 휴식과 개인 생활에 집중하는 트렌드를 말합니다. 워라밸이 잘 지켜지야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워라밸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검찰인을 만나 보았습니다~

식후에는 커피? No No, 식후에는 운동이 최고!

대검찰청 L모 행정관

안녕하세요! 워라밸을 유지하는 저만의 노하우는 바로! 점심시간 틈새 운동입니다. 이마 체육단련실이 설치돼 있는 청이 꽤 많을 텐데요, 저는 작년부터 정보통신과 동료들과 체력단련실에서 1주일에 서너 번 정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40분 정도 땀을 흘리고 나면 알차게 1시간이 지나갑니다. 몸도 좋아져서 자신감도 생기고 있습니다 하하하. 운동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체력단련실을 찾아주세요~ ^^

집에서도 자꾸 일 생각이 난다구요? 그럴 땐 DIY 미니어처 하우스를 들이셔야 합니다~!

인천지검 J모 수사관

저만의 '잇템'은 바로 DIY 미니어처 하우스 만들기입니다. 집 모형을 만드는 건데요, 화분이랑 책, 책장 보이시나요? 디테일이 살아있죠? 올해 안에 집 전체를 완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정말 저희 집보다도 좋네요..하..그 시간만큼은 무념무상으로 집중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게 참 좋습니다. 퇴근해서도 일 생각이 자꾸 나면 정신건강에 해롭잖아요^^ 음악을 들으며 오롯이 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DIY 미니어처 하우스, 워라밸 유지 아이템으로 추천합니다!

여러분 봄이잖아요~ 봄에는 나가셔야죠! 마라톤 어떠세요?

밀양지청 K모 직원

안녕하세요~ 남쪽 나라 밀양에서 인사드립니다. 서울은 이제 벚꽃이 피기 시작한다죠? 여긴 벌써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저는 2월 인사 때 서울에서 전보를 받았다. 낯선 곳에서 찾은 저만의 워라밸 비법은 마라톤입니다.
밀양지청 직원들의 운동 사랑은 남다릅니다. 지청장님부터 농구를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저도 전입하자마자 함께 마라톤을 뛰자는 제안을 받아! 지난 3월17일 창녕부곡온천마라톤대회에 참가해 5km를 완주했습니다~ 짧은 거리였지만 성취감도 남다르고 상쾌하더라구요. 이 기세를 이어 이번 달엔 서울로 원정을 가서 10km 코스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뉴스레터 애독자 여러분, 봄맞이 마라톤 어떠신가요?

03 있잖아, 너 혹시 벚꽃이니?

헷갈리는 봄꽃 전격 비교

4월은 꽃의 계절이죠! 벌써 개나리, 목련같은 봄꽃들이 거리를 채우고 있는데요. 익숙하게 생각하던 꽃들이 사실은 그 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모양이 닮아서 아는 꽃이라고 생각하고 넘기셨을 수도 있지만, 종류가 다른 꽃들도 있다는 거! 대검찰청 뉴스레터와 함께 헷갈리는 봄꽃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시죠!

개나리 VS 영춘화

영춘화는 꽃잎이 5~6개로 꽃과 줄기 사이에 꽃대가 약간 올라와 있습니다. 또 향기가 없고 수술은 2개입니다. 개나리꽃은 꽃잎이 4개이고 영춘화와 다르게 꽃잎이 활짝 벌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나리는 영춘화에 비해 향기가 진한 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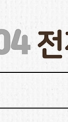
매화 VS 벚꽃

매화는 2월 말쯤부터 피기 시작하는 반면, 벚꽃은 3월 중순부터 4월까지 핍니다. 두 꽃의 모양도 서로 다릅니다. 매화 꽃잎은 둥그랗지만 벚꽃의 꽃잎은 오목한 홈이 있어 하트 모양입니다. 또한 매화는 가지에 붙어서 피고, 벚꽃은 나무와 꽃 사이에 긴 꽃자루가 있습니다.

진달래 VS 철쭉

진달래는 4월부터 피기 시작하여 꽃이 먼저 피고 전 후 잎이 나옵니다. 반면 철쭉의 개화시기는 5월이며, 잎과 꽃이 함께 핍니다. 진달래와 철쭉은 꽃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철쭉꽃에는 짙은 반점이 있습니다. 이 반점은 꿀을 만드는 일선으로, 진달래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산수유 VS 생강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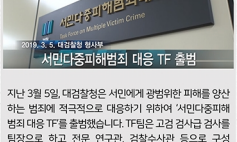


산수유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흔하지만, 생강나무는 주로 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산수유는 꽃자루가 길게 뻗어 나와 그 끝에 봉오리가 있으며 노란색인 반면, 꽃자루가 짧아 가지에 꽃들이 붙어 있고 꽃자루가 푸르스름한 녹색이면 생강나무입니다.

04 전지적 검찰 시점

대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서민다중범죄 대응 TF 출범



지난 3월 5일, 대검찰청은 서민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양산하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TF'를 출범했습니다. TF팀은 고검 검사급 검사를 팀장으로 하고 전문 연구관, 검찰수사관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앞으로 TF팀은 다단계·유사수신, 불법 사금융,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은 물론, 가상통화·P2P 등을 이용한 신종 범죄에 대해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여 수사뿐 아니라 범죄수익 환수, 피해 회복까지 책임지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선량한 서민을 노리는 범죄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검찰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지켜봐 주세요!

인권문화제 '어울림'

지난 3월 15일, 대검찰청에서 인권부가 주최하는 제2회 인권문화제 '어울림' 행사가 열렸습니다. <반두비>라는 영화를 상영했는데요, 방글라데시 출신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우리 사회의 차별과 편견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상영 후 감독과의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신 감독은 본인이 내성적인 성격이라 스스로를 '아웃사이더라고 생각해 왔고 그들이 주인공인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009년 영화 개봉 이후 대검에도 인권부가 생기는 등, 소외 계층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어울림' 행사는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한 검찰 구성원들의 굳건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뛰어날 檢 빼어날 察

1·2월 형사부 우수 수사관·실무관 선정

우수 수사관 :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임남수 수사관

임남수 수사관은 여조부에 근무하면서 생후 6개월의 영아가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사건을 맡아,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 경찰, 국선변호인 등과 회의를 열고 아동의 피해 정도를 확인하여 빠르게 보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4건의 조서 작성, 90건의 수사보고서 작성, 113건의 형사조정 의뢰를 하는 등 본연의 업무에도 충실함을 보여줬다 1·2월의 우수 수사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소감 한마디

이것은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전체에 주신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서부지검 여조부는 오정희 부장님과 함께, 각 방 검사님과 수사관, 실무관이 한 마음으로 여성과 아동의 인권보호에 힘씀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렇게 우수 수사관에 선정되게 된 것은 현재 충주지청에서 근무하시는 전하정 검사님 덕분입니다. 다시 한 번 검사님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수 실무관 :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 유연화 실무관

유연화 실무관은 두 달 동안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하고, 그 중 207건(구공판 31건, 구약식 54건, 불기소 122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검사실 구성원들과 유대 관계가 좋고, 주어진 업무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1·2월 우수 실무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소감 한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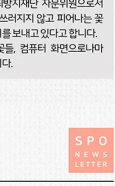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형사부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실무관님들을 대신하여 아직 부족한 제가 우수 실무관에 뽑히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앞에서 이끌어주시고 뒤에서 도와주시는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신속·정확하게 사건을 처리하시는 신정수 검사님, 늘 열정적으로 조사하시는 이규범 수사관님, 함께 공감해주시며 힘을 주시는 김혜정 수사관님과 한 팀으로 만나 많이 경험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서면으로나마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는 자세로, 발전하는 실무관이 되겠습니다.

05 뛰어날 檢 빼어날 察

1·2월 형사부 우수 수사관·실무관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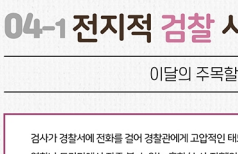
우수 수사관 :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임남수 수사관

임남수 수사관은 여조부에 근무하면서 생후 6개월의 영아가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사건을 맡아,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 경찰, 국선변호인 등과 회의를 열고 아동의 피해 정도를 확인하여 빠르게 보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4건의 조서 작성, 90건의 수사보고서 작성, 113건의 형사조정 의뢰를 하는 등 본연의 업무에도 충실함을 보여줬다 1·2월의 우수 수사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소감 한마디

이것은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전체에 주신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서부지검 여조부는 오정희 부장님과 함께, 각 방 검사님과 수사관, 실무관이 한 마음으로 여성과 아동의 인권보호에 힘씀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렇게 우수 수사관에 선정되게 된 것은 현재 충주지청에서 근무하시는 전하정 검사님 덕분입니다. 다시 한 번 검사님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수 실무관 :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 유연화 실무관

유연화 실무관은 두 달 동안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하고, 그 중 207건(구공판 31건, 구약식 54건, 불기소 122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검사실 구성원들과 유대 관계가 좋고, 주어진 업무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1·2월 우수 실무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소감 한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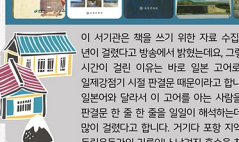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형사부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실무관님들을 대신하여 아직 부족한 제가 우수 실무관에 뽑히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앞에서 이끌어주시고 뒤에서 도와주시는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신속·정확하게 사건을 처리하시는 신정수 검사님, 늘 열정적으로 조사하시는 이규범 수사관님, 함께 공감해주시며 힘을 주시는 김혜정 수사관님과 한 팀으로 만나 많이 경험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서면으로나마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는 자세로, 발전하는 실무관이 되겠습니다.

06 이런 검찰인 처음이지?

검찰 인물 탐구

포항 향토사학자 (현 울산지검 사건과장)
이상준 검찰수사서기관

지난 3월 11일, 우리 '지상파' 방송!!인 포항MBC <톡톡 동해안>이라는 프로그램에 반가운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상준 서기관인데요, 그날만큼은 검찰 공무원이 아닌 '향토사학자'라는 직함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희 뉴스레터 제작진이 한 번 취재해보았습니다.
이 서기관은 포항 출신으로 1987년도 공채로 검찰에 입사하여 내년에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 검찰에서 업무를 보면서 옛날 판결문이나 일제강점기 문건 등을 접할 기회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던서 자연스럽게 고향 포항과 관련된 문서에 관심이 생겼고, 잘 알려지지않은 지역사 자료를 수집·연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서기관은 포항 지역의 독립운동을 계속 연구하여 2016년 「포항의 3·1운동사」, 2017년에는 「포항의 독립운동사」라는 책을 펴내기까지 했는데요, 3·1운동 100주년인 올해에 더욱 의미있는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 이상준 서기관 저서
↑↓ 답사 현장 사진

이 서기관은 책을 쓰기 위한 자료 수집에 10여 년이 걸렸다고 방송에서 밝혔는데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바로 일본 고어로 작성된 일제강점기 시절 판결문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대 일본어와 달라서 이 고어를 아는 사람을 찾아가 판결문 한 줄 한 줄을 일일이 해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거기다 포항 지역에 남은 독립운동가의 기록이나 남겨진 후손을 찾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예전부터 지역과 소통하는 검찰이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이 서기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멋진 검찰인으로 소개합니다. 다음 책도 기대할게요~!!

07 퀴즈왕 당첨자는 나야 나~

어머님, '검찰민원사전'을 사무실에 들이셔야 합니다~

뉴스레터 애독자 여러분. 검찰방송에서 제작하고 있는 '검찰민원사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형사조정, 범죄피해자지원 등 국민들이 알아두면 좋을 정보를 현직 검사들이 직접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콘텐츠입니다.지난 3월에 범죄피해자지원제도에 대한 영상이 올라갔는데요~ 그럼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Q.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제도 중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과 대면하지 않도록 해 주는 제도는?
(초성: ㅂㄱㄱ ㅈㅇ)

Hint!
spbs 검찰민원사전 4탄 <'Two잡'이 알려주는 범죄피해자지원제도>
7분 40초 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정답을 맞힌 분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검찰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알 리 니 다

tvN 어쩌다 어른
<인사이드아웃 미아> 김웅 검사편!
2019.4.11. 저녁8시10분 방송예정

5월, 함께하는 이준 Justice 캠프 참가자 모집

'프로(pro)궁금러들 모여라!'& '쇼미더프로(pro)'
이번 이준 Justice 캠프는 평소 궁금해 대해 알고 싶었던 '프로(pro)궁금러'를 위한 검사 · 검찰 수사관의 강의와 검찰 노래를 직시해보는 '쇼미더프로(pro)'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의도 듣고 푸짐한 선물도 받아가는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 참가 대상 - 전국 중학생 누구나
▶ 일시·장소 - 2019. 5. 3. (금) 10:30~16:00, 대검찰청
▶ 신청 방법 - 대검찰청 공식 블로그 최고(14994993) 공지 게시 예정)
▶ 증정품 - 참가자 전원 기념품 및 우수참가자는 소정의 부상 제공 예정
※자세한 문의 - 대검찰청 대변인실 이준 캠프 담당자(02-3480-2616)

3월호 행운의 당첨자

진호성(서울고검) 유재일(안산지청) 김현진(김천지청) 송현우(부산지검)